# 마음에도 계절이 있습니다.

## 지금의 시린 겨울도 결국은 봄을 부르기 위한 기다림입니다.

진안은 우리 엄마의 고향입니다. 엄마는 중학교를 마치고 벌이를 위해 서울로 오셨습니다. 엄마의 고향을 늘 지도로만 보았습니다.

전라도에 올 기회가 없었지만 예비신랑이 남원 촌놈이라 근처인 진안에 숙소를 잡고 놀러왔습니다.

말로만 들었던 진안의 풍광은 예상보다 더 뛰어납니다.

푸른 나무와 맑은 강물,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!

여러 시절을 진안과 함께 하였는 엄마가 부럽습니다.

나뭇잎에서도 ~~냄새가~~ 향이 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

앞으로 나뭇잎 냄새를 맡으면 진안 생각이 먼저 나겠죠?



▶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(063)430-8529

▶ 자살 ·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-0199

QR코드를 찰칵! 찍어주세요

나들e진안

마음건강검진